

마음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본질이 아니다

| 월인 |

마음에서 '구별'되는 모든 것은 본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분별된 것이므로 본질이 아니다. 뭔가 '있다'고 상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기 시작하면 옆길로 빠진 것이다. 텅 빈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느껴지는 '무엇'인, 현상으로 있는 것일 뿐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있다, 없다'에 연관된 그 어떤 것도 본성과는 상관이 없다.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있고 없음의 세계와 상관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오직 경험적으로 증득할 뿐 (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3. 생멸문生滅門：심생멸心生滅

이제부터는 생멸生滅하는 마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질을 통해서 드러난 마음이 생멸심生滅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마음 자체도 본질의 표현입니다.

心生滅者，依如來藏故有生滅心。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
심 생 멸 자 의 여 래 장 고 유 생 멸 심 소 위 불 생 불 멸 여 생 멸 화 합
非一非異，名謂阿黎耶識。
비 일 비 이 명 위 아 례 야 식

심생멸이란 여래장에 의존하므로 생멸심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룸하여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논論]

여래장如來藏은 여래가 감추어져 있는 것, 여래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는 여래의 본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현상과 여래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래장은 본질이 담겨있는 모든 것을 말하므로 현상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심생멸心生滅이란 마음이 생멸한다는 것이고, 이 생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 즉 여래장에 의한 것이므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이 생멸生滅과 더불어 화합한다고 했습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이 생멸生滅과 더불어 화합한다는 말에 대한 원효대사의 소疏를 살펴 보겠습니다.

발견되고 파악되는 모든 것은 움직이는 마음이다

不生不滅者，是上如來藏。不生滅心動作生滅，不相捨離。
불생불멸자 시상여래장 불생멸심동작생멸 불상사리

名與和合，如下文言，如大海水因風波動，水相風相不相捨離。
명여화합 여하문언 여대해수인풍파동 수상풍상불상사리

乃至廣說。
내지광설

불생불멸不生不滅이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の 여래장을 말하고, 이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움직여서 생멸을 일으켜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아 화합한다고 이름한 것은, 아래의 글에서 “바닷물이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일어나지만, 물의 상(水相, 젖는 성질)과 바람의 상(風相)이 서로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고 널리 설한 것과 같다.

[소疏]

바닷물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풍상風相을 떠나지 않았고, 움직이는 것마다 젖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물결이 수상水相, 즉 젖는 성질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이 불생불멸의 마음 전체가 바닷물처럼 움직이기에 마음이, 모양을 지닌 파도와 같은 생멸상生滅相을 떠나지 않았고, 생멸상이 신묘한 알음알이가 아닌 것이 없기에 심상心相을 떠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불생불멸과 생멸이 융합하는 것이라고 원효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불생불멸의 마음은 바다 자체이고, 생멸하는 마음은 바람의 모습이나 물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의 상相을 따라 어떤 모습의 물결이 생겨나지만, 그 바람의 상을 띤 물결은 결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항상 변함없는 물이듯, 우리 마음의 어떠한 모습(相)이라 할지라도 마음 자체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유는 그럴듯한데 이 비유를 보면 바다라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

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다라는 것을 상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변치 않는 물의 모습이나, 물의 성질 등과 상관없이 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바다가 우리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려집니다. “아~ 그래. 바다가 있고, 그 바다는 물결이나 물에 젖는 성질과는 상관없지. 그런 게 있어.”라고 마음이 바다를 그리면서 본질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의해 잡혀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상상이 있다는 것은 그 상상의 본질이 ‘있다’는 증거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개념입니다. 무언가 마음의 본질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분별된 것이므로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고 상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기 시작하면 옆길로 빠진 것이지요. 어느 곳에서는 “마음이 멈추고 텅 비면 그것이 느껴지죠? 그것이 본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텅 빈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느껴지는 ‘무엇’인, 현상으로 있는 것일 뿐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에 연관된 그 어떤 것도 바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있고 없음의 세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감지¹⁾를 연습하다 보면 마음속 어떤 대상의 느낌뿐 아니라 관찰하고 살펴보는 ‘자기’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피게 됩니다. 그런 살펴보고 있는 ‘자기’도 마음에 의해서 ‘잡히는 것’을 보면 그것 역시 마음의 ‘움직임 중의 일부’임을 알 수

1) 감지感知 : 깨어있기 용어. 감각을 통해 들어와 마음에 남은 경험의 흔적.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잡히는 대상’은 당연히 모두 ‘움직이는 마음’이며, 그 나타난 현상을 관찰하고 잡으려 찾고 다니는 자기 또한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찾으려는 ‘의도’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것을 아는 그 ‘앎’ 또한 ‘움직여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파악되고 발견된다면 뭔가 시원함이 올 것입니다. 즉, 발견되고 파악되는 모든 것은 움직여진 마음이며, 우리는 움직여진 마음이 움직여진 마음을 파악하려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모양’이 있음을 ‘아는’, 또 ‘다른 물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파도처럼 움직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비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 어떠한 ‘물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물의 모양은 본질이 표현되어 나타난 거야.” 하고 아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의 모양’과 그 ‘누군가’ 사이에 ‘앎’이 생겨납니다. 대상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소리 같은 그런 ‘앎’입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그래. 이 앎도 역시 마음의 움직임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소리와 같으며 소리가 소리를 아는 작업입니다. 소리가 있을 때만 모든 앎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들어가 대상이 아닌, 살펴보려는 ‘자기 자신’ 역시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살펴려는 마음을 되먹임하며 동시에 그것이 움직이는 마음임을 아는 물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물의 모양임을 ‘아는’, ‘또 다른 물의 모양’을 끊임없이 만들게 됩니다. 마음은 움직일 때만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되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움직여진 마음인데 그 움직여진 마음이 바로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도와 같은 생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같은 본질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쉬우나 “본질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무언가 있을 거라는 그 ‘있음’도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있고 없음의 분별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앎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앎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증득함으로써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식의 최종상태, 마음의 삼분열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두 전체주의²⁾를 해봅니다 (주의를 주변 전체에 보내는 상태가 되었는지 기다린다). 전체주의 상태가 되면 마음은 어느 한 대상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로 퍼져나가는 주의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전체주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전체주의가 대상이 되고, 전체주의 상태임을 아는 앎이 있고, 대상(전체주의)을 보고 있는 관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찰자를 다시 보거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주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라는

2) 전체주의 : 보통 우리의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 보내어진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주변의 전체에 보내어짐으로써 개별적인 대상에 주의를 가지 않는다. 이때 주체-대상의 관계에 의해 주체 역시 개별적이지 않은 상태가 된다.

대상을 보고 있는 관찰자 즉 주체로 그대로 존재하세요. 그 관찰자를 찾아서 보려고 하면 관찰자를 향하는 마음이 전체주의를 대상으로 보는 마음을 망가뜨리고, 관찰자가 대상이 되어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마음은 ‘전체주의’ 상태이고, 그것을 아는 관찰자 즉 ‘주체’가 있고, 그것을 아는 ‘앎’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주의와 전체주의 상태임을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주체인 관찰자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 주체로 동일시되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일시된 자기는 다시 그것을 대상으로 만들어 관찰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에서 안다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전체주의 상태와, 전체주의가 있다는 앎, 이 두 가지는 물의 모양입니다. 이 두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느끼거나 아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주체 역시 하나의 모양, 움직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체와 동일시되어 있기에 그것을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마음의 장에는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전체주의 상태와 그것을 아는 앎, 그리고 주체. 여기서 주체는 느껴지거나 알려지지 않지만 마음에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앞의 두 가지가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물의 모양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의 삼분열三分裂이라 합니다. 이 세 번째, 인식되지 않는 ‘주체’ 역시 마음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현상임을 ‘깨우치면’ 여러분은 즉각 본질의 자리로 물러나게 됩니다.

본질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본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란 있는 것

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 모든 마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바로 그런 있고 없음이라는 분별마저 모두 떠난 것입니다.

자아自我의 씨앗

유식학唯識學에서는 아뢰야식에 이르는 마음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 놓고 그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반론도 합니다. 우선 전체 열개를 살펴보면 식識에는 5식, 6식, 7식, 8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 9식까지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8식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식은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 만들어 내는 식識입니다. 눈이 시각적인 대상을 만나 마음에 흔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眼識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마음에 흔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식耳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이, 비, 설, 신이 만들어 내는 식이 5식입니다. 6식은 안, 이, 비, 설, 신이 만든 마음의 흔적인 감지(느낌)를 대상으로 작업하며, 흔히 표면의식이라고 하는데 자아自我 또는 에고ego라는 허구적이고 임시적인 주체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7식을 불교에서는 마나스식이라고 하며 현대어로 말하면 표면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면인 전의식前意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어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미묘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의식이 세밀해지면 파악되기도 합니다. 표면의식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중심축이 필요한데 전의식이 그 역할을 하며 표면의식과 소통하므로 전의식을 표면의식의 의지처라고 합니다. 이 마나스식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경향성을 ‘나’라고 집착하는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므로 에고의 씨앗이라고도 표현하

며 의식할 때 동일시된 중심 역할이기 때문에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느끼고, 감지 연습을 한동안 하다 보면 “아, ‘나’라는 것도 하나의 느낌이구나.” 하고 파악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라고 알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는 것도 하나의 느낌일 뿐임을 파악하기 위해 애써 왔는데, ‘나’라는 것이 느낌으로 파악된다는 것은 바로 전의식이 표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느낌은 표면의식의 중심축 역할을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이 또한 생멸식입니다.


8식은 무의식無意識인데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아뢰야식을 이숙식異熟識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원인과 상관없이 다르게(異) 성숙된다는(熟) 뜻입니다. 즉 선악善惡의 원인으로부터 선도 악도 아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여 이숙식異熟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 또는 원인과 상관없는 이숙식異熟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아뢰야식이라 하며 유가학과나 유식학에서는 이 아뢰야식 역시 생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아뢰야식을 생멸하기도 하고 생멸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생멸심不生滅心과 생멸심生滅心이 다 있다, 각覺과 불각不覺이 다 있다.”라고 말하며 여래장如來藏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본질을 일컬어 여래如來라고 하는데 모든 현상 속에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여래如來가 저장藏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현상과 법법을 여래장如來藏이라 합니다. 특히나 깊은 무의식 안에 본질의 씨앗이 담긴 다양한 현상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여 아뢰야식을 여래장如來藏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대승

기신론의 관점은, 부처와 중생으로 나눈 분별심만 사라지면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기에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이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왜 아뢰야식, 즉 무의식을 여래장이라고 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흔적과 현상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장된 것도 하나의 현상이므로 본질이라 할 수 없기에 유가론에서는 이 무의식 즉 아뢰야식을 생멸심(生滅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컵, 책장, 의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컵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컵의 형상과 느낌이 들어와 있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컵으로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제 그 옆의 책장을 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컵에서 책장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마음의 그림도 달라집니다. 감지, 즉 내 마음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컵’이라는 마음은 사라지고(滅) ‘책장’이라는 마음이 생긴(生) 것, 이것이 생멸심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때, 뭔가를 생각할 때, 어떤 냄새를 맡을 때 매 순간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태어났다’ 여기고 ‘죽는다’ 여기는 마음도 바로 이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그 마음에 어떤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으며 마음의 내용이 전혀 없다면 거기 무슨 생과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뢰야식이 생멸한다고 보는 관점은 표면의식이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 불이不二의 우주 전체인 세상(世上)에 선을 그어 나누고 구별하고 이름 붙인 세계(世界)를 바라봅니다. 불이不二의 ‘세상’에는 생멸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이름 붙인 ‘세계’에는 생멸이 끊임없습니다.

이번에는 감각感覺TM(깨어있기 용어)으로 살펴봅니다. 감각 상태에서 컵을 보다가 책장을 보고, 다시 방 전체를 감각으로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때는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별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모든 것이 구별되지만 구별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대승기신론의 견해가 이해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만한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불이 아닌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향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